

1부 #40

여고생 민정_아버지가 근무 중 국회의원 아들에게 폭행 당하고 투신하여 생명이 위독해져 청부살인 의뢰를 하러 온 상황.

<사설탐정사무소, 낮>

규태, 정우, 빙썬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출입문 쪽을 쳐다본다. 카메라가 빠지면 교복을 입은 여고생 한 명이 서 있다. 여고생의 표정이 너무나 비장하고 비참하다.

여고생 여기... 돈만 주면 뭐든지 해 주는데 맞죠?
정우 뭐.. 딱히 그런 건 아닌데... 음.. 또 딱히 그러기도 하고.. 근데 왜?
여고생 무슨 의뢰를 하던 비밀 지켜주는 거 맞죠?
정우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. 왜? 뭐 의뢰할 거 있어?
규태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니?
여고생 (고개 절레절레)
규태 그럼...?

여고생,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적금통장이다.

여고생 돈 주면... 사람도 죽여주나요?
규태.정우 !!!!!!!!!!!!!!
여고생 영화 보니까 그러던데...

cut to

여고생, 소파에 앉아 있다. 정우가 음료수를 테이블에 놓고 앉는다.

규태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한 생각이야.
 더구나 학생이 그런 말도 안 되는.. (하는데)
여고생 (차라리 담담한 말투) 법이 우리 편이 아닌데 그럼 어떡해요...

여고생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. 당황하는 규태와 정우.

여고생 아빠가... 투신을 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... 생명이 위독하대요.

깜짝 놀라 당황하는 규태의 모습에서...

여고생 아빠를 CCTV가 없는 기관실로 끌고 가서 개 패듯이 뺐어요.

그레놓고선 자기가 맞은 것처럼 쇼를 하고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.

여고생 경찰은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. 오히려 아빠가 먼저 폭행을 했다고
몰아붙이면서 무고죄까지 추가 시킬 수 있다고 협박을 했어요.

차라리 담담한 표정의 여고생. 규태의 동공이 흔들린다.

규태, 부르르 떨며 주먹을 쥜다. 여고생, 차라리 결연한 표정으로 규태를 바라본다.

규태 그 가해자... 누군지 알고 있니?

여고생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어요. 그래서
저랑 오빠랑 수소문 끝에 알아냈어요. 그때 알게 됐죠.. 왜 저들이
일방적으로 그 남자 편을 들었는지...

규태 ???

여고생 국회의원 아들이래요.

규태 (깜짝 놀라) 국회의원? 누구?

여고생 장상택 의원이요.

규태, 정우, 동시에 화들짝 놀란다.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규태.

규태 장.. 석빈..?

여고생 아저씨가 어떻게 아세요?